교회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2년 교회표어: 그 한사람, 그 예배자 (요한복음 4:24)
- ◎ 바자회: 선교와 성전건축을 위한 바자회가 있습니다.

일시: 11월 17일(토) 오전 8시 ~ 오후 4시 장소: Hall 및 교회 마당

물품수집: 매 주일과 수요일 (11월 14일 까지) 담당: 조헌구, 김광영 집사

기증할 물품내용을 물품표에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남선교회 회원들은 물품

수집에 함께 동참하며 물품표를 부착하셔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협력:** 바자회를 위한 물품 정리를 위해 성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11월 16일 (금) 오전 10시부터 장소: 교회 Hall

◎ **도움:** 2013년 교회 요람 발간에 따른 주소, 전화번호, 상호가 변경된 성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 점심 준비하신 주방 봉사부에 감사드립니다.

◎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 실에서 있습니다.

◎ 월례회: 1남 선교회, 4여 선교회 월례회가 아동부실과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교우소식

◎ 결혼: 조재근, 방명아 집사 장너 온유양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일시: 2012년 11월 10일 오전 11시 장소: 교회 본당

11윜 새벅 기도회 본문

2일: 욥기 18:1-21 사망에 이르는 악인의 운명

16일 : 욥기 27:1-12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

30일 : 욥기 33:14-33 말씀을 찾는 갈급한 마음

9일: 욥기 22:1-20 추정하는 죄목, 직설적인 정죄 23일: 욥기 30:16-31 광야길을 통과하는 티끌 인생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중국: 김강한목사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밀알장애우 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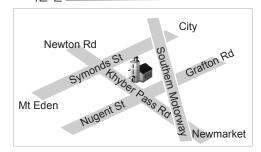


설교 방송: www.youtube.com /calvaryorgnz Facebook: www.facebook.com /calvarykoreanchurch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주일2부예배	주일 PM 3: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중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오시는 길 ■



2012년 11월 4일

14권 45호 교회창립 1999/07/14

www.calvary.org.nz



2012 그 5는나라 그 예반자는 (요4:24)

빗자루로는 먼지를 쓸 수 없습니다

천로역정이라는 기독교 고전을 학창시절에 읽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함께 성경 다음으로 사랑 받는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천로역정은 17세기 영국에서 활약한 복음전도자인 죤 번연(John Bunyan, 1628-1688)의 작품으로 원래 영어 제목은 "The Pilgrim's Progress in the similitude of a Dream" 입니다. 번역하면 "꿈에 비유해서 쓴 순례자의 편력"이라 할수 있는데 우리 말은 한문의 제목을 그대로 옮겨 천로역정(天路歷程)이라 합니다. 천로(天路)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말하며, 역정(驛程)은 거쳐 온 길을 뜻 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유명한 기독도가 해석자의 집에 도착하여 큰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녀가 들어와서 빗자루를 가지고 막 방을 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납니다. 쓸면 쓸수록 먼지가 계속 일어나지만 하녀는 미련스러울 정도로 계속 빗질을 합니다. 얼마 후 한 사람이 거기에 물을 끼얹습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다 잦고 깨끗이 쓸렸습니다.

여기서 큰 방은 '인간의 마음'이고 먼지는 '죄', 빗자루는 '율법'(도덕)입니다. 빗자루로 쓸수록 먼지는 계속 나옵니다. "착하게 살아라" "올바른 사람이 되어라"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더 하고 싶지 않아서 갈등만 생깁니다. 그러나 물은 복음입니다. 복음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도덕이 실패한 곳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윤리가 실패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윤리가 필요 없고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으로 즉 빗자루로는 우리 마음의 방에 있는 먼지인 죄를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불신자들은 물론 그리스도인들 조차도 복음과 도덕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단순히 도덕이나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는 복음이 아닙니다. 도덕도 복음이 아닌데 윤리와 도덕을 복음으로 잘못 이해하여 윤리와 도덕적인 삶이 곧 복음으로 사는 것이라 여겨 이 정도의 삶이면 괜찮게 사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은 감격을 가지고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요. 삶입니다. - 이태한 목사

당한 명한 보기 교회 담임목사: 이태한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 - 369-5077 Ph: 09-475-6312 PO Box 8298 Symonds Street Auckland 1150

주일 1부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시편 100:45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	찬송	36장	다함께
*	성시교독	85. 요한1서 4장	다함께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250장	다함께
	대표기도		고성일집사
	성경봉독	사도행전 13:13-23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태한목사
	찬송	266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	응답송	살아 계신 주(1,3절)	다함께
*	축도		이태한목사

주일2부예배 (15:00)

인도: 심창진 목사 찬양 / 심창진 목사 기도 / 장연식 집사 성경봉독 / 욥 19:13-29 설교 / 고난 중의 깨달음 / 심창진 목사 찬송 / 하나님의 음성을 헌금기도 / 인도자 광고 / 인도자 축도 / 심창진 목사

수요예배 (19:30)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 수요찬양단 기도 / 최광암 집사 성경 / 삿 16:1-3 설교 / 삼손과 들릴라 / 이태한 목사 합심기도 / 인도자 광고 / 인도자 찬송 / 423장 주기도 / 다함께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은 들어오실 때 허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건축헌금 지난주: \$0.00

총계: \$623,938.19

방명아 집사

○ 川縣 正刻写列

바자회:

11월 17일(토)

정책당회 11월 24일(토)

공동체 주관 수요예배: 11월 28일(수)

◎ 川兴 明明某小水

예배안내 :

고성일

새신자 안내:

김광자

주차안내: 민광호

주방봉사

한상순/김윤숙/장태옥/ 워미경/박제란

○ 71至台付

이번 주 애찬기도: 박수현 집사 다음 주일 1부: 박덕철 집사 다음 주일 2부: 원미경 집사 11월 14일 수요기도: 김태만 집사 11월 14일 애찬기도: 민광호 집사 11월 18일 1부: 박병민 집사

11월 18일 2부:

금주의 기도제목

1. 국내

영적으로 쇠퇴해가는 뉴질랜드 땅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이곳 한인교회들이 주안에서 더욱 강건해지고 연합하여 이 땅에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각국의 젊은이들이 방종과 타락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도록.

2. 교회와 공동체

- 1) 지방이나 타국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자녀들이 향수병으로 인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영육으로 강건하여 주어진 공부와 삶에 충실하도록,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성전 건물이 나타나도록,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이 일을 위해 기도에 힘쓰도록.
- 2) 태국공동체: 순돈호, 한수절 선교사(슬로바키아) 부부의 뉴질랜드 방문이 주의 은혜 가운데 뜻있는 일정이 되도록, 열방으로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의 건강과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3. 국외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한국 국민들에게 지혜를, 학연, 지연, 혈연에 치우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진실로 국민과 생명을 존중하는 일꾼이 대통령으로 선출 되도록, 가진 부를 선하게 나눌 줄 아는 한국 교회가 되도록.

이 주일의 시

性外外 이런 性이게 하丘树 / 김석하

상백했던 얼굴에 오늘은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다음의 평생가 가슴을 차지한 지금 살다보니 배운 건 감사의 다음입니다

병바캔 일기자을 꺼내 다음 저서도 오늘은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염분기 어린 이슬 탁고 있는것 가슴 할퀴는 일일뿐인 생각을 지우니 살다보니 배운 건 용서의 다음입니다 좋은 날만 있을 수 없겠지요 합번은 평평 울어버릴 눈물도 필요하고 가시에 찍힌 듯 때가운 산차가 굶어서 터지고 아물떠 새 살이 돋을 때까지 동증을 견대야 하는 날도 필요합니다

오늘이 있기에 나를 아케더 살겠습니다 내일이 있기에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미래가 있기에 나는 행복을 가졌습니다 작은 소망으로 하루를 사는 내게 얼마다 이런 얼이게 하소서

